

동아시아古代學 제60집

동아시아인 집단의 기원에 대한 연구와 동아시아
고대사 인식의 새로운 지평

장우순 · 문치웅

2020. 12.

東아시아古代學會

동아시아인 집단의 기원에 대한 연구와 동아시아 고대사 인식의 새로운 지평

장우순* · 문치웅**

目 次

- I. 머리말
- II. 인류학-자연과학과 인문학의 융합
- III. 일본의 연구 동향
- IV. 중국의 연구 동향
- V. 연대와 혁신을 위하여

【국문초록】

인류 및 동북아인의 기원을 연구하는 인류학은 새로운 유전학 기술을 받아들인 분자인류학이라는 새로운 융합학문의 성과에 힘입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동북아 고대사는 본질적으로 한국인·중국인·일본인의 기원 및 이주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분자인류학이 새롭게 밝혀내고 있는 동아시아인 집단 및 동북아인 집단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은 동북아의 고대에 대해 새로운 역사해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적어도 분자인류학적 분석을 근거로 한 동아시아인 집단의 기원 및 이동에 대해서 한·중·일 학계의 결론은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한·중·일 역사학계의 해석은 분자인류학이 도출해낸 결과와는 큰 거리가 있다. 분자인류학의 성과를 역사학계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협업을 진행할지가 향후 분자인류학과 역사학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 광복회학술연구원 연구위원

** 흥익재단 연구원장

주제어: 인류학, 분자인류학, Y-염색체, 미토콘드리아 DNA, 고DNA, 동북아인의 기원.

I. 머리말

인간집단의 기원과 계통, 이동의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해온 연구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관심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 사색하고, 그 답을 탐구하던 오랜 본능에서 비롯되었겠지만, 학문적 차원에서는 서구 근대 산업 사회가 들어선 이후에야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근래에는 끊임 없이 발전하고 있는 자연과학의 성과를 토대로 전문적인 새로운 학문 분야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개별 민족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문화, 언어, 역사 등 그 종적인 기반을 이해하는, 민족학의 중요한 전제가 되지만, 역설적으로 과거나 '전통'이 아닌 근대에 만들어진 민족의 상을 기반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각 민족의 근대적 정체성 및 구성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본래의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와 상징의 파고에 휩쓸려 역사적 실체와 동떨어진 허상을 가리키게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역사 및 민족문제가 통치의 주된 담론으로 유통되는 일부 사회에서 민족의 기원 및 이동의 문제는 때때로 과장되거나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

한·중·일 삼국은 서로 지리·혈연·문화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많은 연구자가 그 기원 및 교류에 주목하여 이미 상당한 양의 연구가 축적되었고, 지금도 다양한 관점의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한·중·일 내부에서는 주로 정치적인 이유로 서로의 이동이나 교류의 과정이 부정되거나 왜곡되곤 하였다.¹⁾ 하지만, 그간 발견된 많은 관련 증거와 과학의 급속

한 발전은 이러한 부정과 왜곡에 일관되게 의문을 제기한다. 중국은 1980년대 이후 한국과 동북지역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차단코자 ‘동북공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근대시기 ‘식민사관’을 통해 일본과 관련된 한반도의 고대사를 왜곡하였고, 패전 이후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한반도 도래인의 존재를 부정하며 ‘단일민족기원론’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도 이러한 중국, 일본의 왜곡된 시각을 받아들이거나 특정 종교, 이념에 경도되어 동북아의 기원과 역사를 자의적으로 재단하는 연구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그간 한국에서는 언어학, 고고학, 체질인류학 등의 분야에서 한국인이나 주변 인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국인을 언어학적으로 ‘알타이어계’, 인종학적으로 ‘몽골계’로 보던 기존의 통설은 근래들어 논리적 근거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비교언어학을 통해 주장되었던 알타이어족설은 그 근거를 의심하는 합리적 지적들을 돌파하지 못한 채 현저하게 논의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고, 유전자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인은 몽골인보다 동남아인에 더 가까우며, 일본인·중국인과 가장 가까운 친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고고학의 경우 일제강점기에 일본 관변학자들이 ‘기기신화’를 입증하기 위해 소위 ‘식민지고고학’을 이식한 이래, 오늘날까지 그 틀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적 인류학이 봉착한 한계와는 달리,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유전학 등 자연과학의 성과들은 연구자들에게 수천 년 전 갈라진 종족의 계통, 현대 각 민족 간의 친연관계, 심지어 당시 주민들의 섭생, 병력 등 생활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보들을 과학의 틀 안에서 엄밀하게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 유전학이 교착상태의 언어학과 고

1) 한·중·일 3국에서 민족문제는 주로 정치적인 카드로 활용되어왔다. 때문에 민족, 역사의 문제는 때로는 강하게 정치적인 영역과 연결되었고, 연구자들의 연구 경향에도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

고학을 견인하며 한국인과 한국어의 기원을 찾는 인류학의 새로운 동력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승리자의 주관적 기록인 역사문헌이나 그것을 근거로 해석된 고고 자료가 아닌 엄밀한 과학적 분석의 범위 안에서 인류의 기원, 각 민족의 이동 경로, 고대의 역사 등을 규명할 수 있는 새로운 융합 학문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글에서는 생물학, 유전학, 고고학, 언어인류학, 문헌사학 등 다소 이질적인 학문 분야들이 협업과 융합의 과정을 통해 어떤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는지, 또, 이질적인 학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효율적으로 융합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동북아 인간집단의 기원과 이동에 관한 연구에 한정하여 과거의 추세와 현재의 동향을 돌아보고, 역사학의 새로운 가능성과 전망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인류학-자연과학과 인문학의 융합

인류학은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연구대상과 방법에 따라 인간의 체질현상을 자연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자연인류학(체질인류학)과 사회.문화현상을 인문.사회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문화인류학으로 나뉜다. 문화인류학에서 선사나 고대의 사회.문화현상을 유물, 유적들을 통해 분석하는 분야가 ‘고고학’이고, 역사시대, 특히 근.현대의 사회.문화현상을 기존의 문헌자료와 현지 조사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연구하는 분야가 ‘민족학’²⁾ 또는 좁은 의미의 ‘문화인류학’이다. 미국에서는 자연인류학, 고고학, 민족학 외에 언어와 사회.문화현상의 관계를 연구하는 언어인류학을 포함시켜 4개의 분야로 나눈다. 자연인류학은 생물

2) 영미계에서는 민족학, 프랑스.독일 등에서는 사회인류학이라고 부른다.

로서의 인간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인류의 변화과정을 분자에서 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연구하는 종합학문이다. 19세기 중반까지 인종의 신체 특징과 주거환경·풍속습관의 관련성을 해명하는 데 주력하였으나, 생물학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문화적 현상과는 별도로 신체적 특징만을 생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로 발전하였다. 이후 관련 과학의 발달로 그 연구대상 역시 끊임없이 확대되어 고인류학, 영양류학, 인류의 다양성 연구 등으로 나뉘게 되었다. 분자인류학, 고인류학(고고유전학) 등 인류의 신체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모든 인류학 분야가 자연인류학에 포함된다. 인류학의 가장 큰 강점은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그 경계를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계의 확장은 문제 해결 능력의 다변화로 이어진다. 의학, 생물학, 고고학, 언어학, 역사학 등 어느 분야의 연구자라도 자신의 학문을 기반으로 인류학을 연구할 수 있고, 다른 분야 연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거나 주제를 확장할 수 있다.

타자에 대한 관심에서 탄생한³⁾ 인류학은 인류에게 소중한 영감들을 제공해왔다. 레비스트로스는 여러 원시사회의 다름들 속에 숨어있는 보편을 끄집어내어 문명과 등치시킴으로써 타자를 향하던 서구의 멸시가 오히려 스스로의 무지를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아메리카인디언의 토템을 연구하여 토테미즘을 미개함으로 보던 서구의 시각을 비판하고, 토테미즘이 미개와 문명의 구분을 넘어서는, 인류 보편의 정신을 표현하는 전통이며, 문명사회에서 집단의 분류, 차이, 대립 등의 관계와 같거나 ‘평행관계’에 있다고 설파하였다.⁴⁾ 그의 논의는 백인사회가 가졌다고 주장되던 우월함과 그로 인해 표출되었

3) 근대 서구의 제국주의화 과정에서 나타난 다른 문화와 인종에 대한 관심이 인류학을 성립시켰다.

4) Claude Lévi-Strauss., Totemism, Beacon press, 1963.

던 오만을 돌아보게 하는 지적 자극제의 역할을 하였다. 그의 착상은 인류학뿐 아니라 사회학, 철학 등 모든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에게 구조주의는 '인간 활동의 모든 형식의 저변에 담긴 사고 양식의 탐구'였고, 인류학은 과학적, 자연주의적인 것이었다. 그는 여러 문화 양식을 연구하면서 많은 공통점을 발견하고, 이로부터 상징의 의미와 개념을 구조화할 수 있었다. 그에게 인류학은 인문학적 화두를 자연과학적 사고로 명백히 하는 과정이었고,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하나의 사고 안에서 통합하여 연구대상의 본질을 구조화하는 통합적 인지과학이었다. 유전학 및 자연인류학이 개척한 자연과학적 성과를 인문학이 어떠한 방식으로 공유할지, 두 학문 간의 소통과 융합을 고민해야 할 때, 레비스트로스의 사유는 적절한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분자인류학

생물학·의학 분야의 일부 연구자들이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유전학의 성과를 활용하여 한국인과 주변 민족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현대인이나 고인골에서 채취한 Y-염색체 및 미토콘드리아 DNA(이하 'mtDNA')를 분석하여 각 민족의 기원과 이동 경로, 특징 등을 규명하는데 이미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다.⁵⁾ 1980년대 중반 PCR기법⁶⁾이

5) 일반적으로 Y-염색체는 부계로, mtDNA는 모계로 유전된다. 사람의 유전자는 단백질로 발현되는 부분에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치명적이지만, 발현되지 않는 부분은 생명에 지장이 없어 지니고 있다가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준다. 이처럼 재조합 없이 그대로 후대에 물려주기 때문에 각 지역, 인종별 특정집단을 분류하고 기원을 살피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6) PCR(polymerase chain reaction)은 DNA에서 원하는 부분을 복제하여 증폭시키는 기술로 중합효소연쇄반응 또는 유전자증폭기술이라고도 한다. PCR은 특정 DNA 부위만을 선택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다.

고안되어 유전자 분석에 활용되면서 보다 정밀한 인류학적 적용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DNA, 단백질 등 분자 단위의 물질을 분석하여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을 분자인류학이라고 한다.

국내에서 한국인 집단에 대한 유전적 분석을 시작한 것은 의학자들로, 처음에는 DNA가 아닌 단백질이 대상이었다. 1984년 박명희와 김상인은 한국인 HLA(인간 백혈구 항원)의 항원, 유전자, 일배체형⁷⁾의 빈도를 분석하였는데, 제8차 IHW⁸⁾에 보고된 일본인 HLA와의 유사성과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서였다.⁹⁾ 1986년 백용균 등은 한국의 북·중·남부에 위치한 한양대, 충남대, 제주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혈청단백질, 적혈구효소, 혈액형 등의 유전적 분포와 빈도를 조사하여 한국인이 중국인, 일본인과 전반적인 유전적 빈도가 유사한 것으로 분석하였다.¹⁰⁾ 같은 해 김목현은 한국인은 일본인, 중국인(북부) 순으로 유전적 거리가 가깝고, 일부 HLA 빈도에서는 일본인, 한국인, 중국인 순의 연속변이를 보여주는 항원들이 존재하며, 일부 항원들의 경우 한국인에게서 가장 분포가 높게 나온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중국 → 한국 → 일본의 민족이동설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로 인식되었다.¹¹⁾ 1994년 박명희는 한국인, 일본

7) 동일한 염색체상에 매우 가깝게 연관된 유전자 자리에 위치한 여러 형질의 대립 유전자들이 모여 있는 세트. 보통 한 단위로 유전된다.

8) IHW(International Histocompatibility Workshop)백혈구항원의 높은 다형성과 복잡한 유전적 메커니즘 때문에 연구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임을 인지한 세계의 HLA 연구자들이 1964년부터 서로의 기술과 연구결과 등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한 워크숍.

9) 박명희·김상인, 「정상 한국인의 HLA 항원 분포에 관한 연구」, 『서울의대학술지』 25, 서울대의과대학, 1984, 90-99쪽.

10) Paik Yong Kyun, 「Population Genetic and Econgnetic Studies in Korea」, Invited Lecture at the Workshop on Population Genetics」, the 7th International Congress of Human Genetics. Berlin, West Germany: September 22-26, 1986.

인, 몽골인, 북중국인 사이의 HLA 빈도를 비교하여 동북아시아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였다.¹²⁾

이후, 분자인류학의 주된 연구대상은 DNA로 전환되는데, 주로 mtDNA, Y염색체, 고DNA에 나타나는 변이를 통해 분석대상의 특징을 설명하고, 집단 간의 차이나 동질성을 규명하였다. 국내에서 mtDNA의 분석을 적용한 초기의 연구로는 1991년 김영진 등의 「한국인 집단의 유전학적 연구 10 : 한국인 미토콘드리아 DNA의 유전적 다형」,¹³⁾ 1993년 홍성수의 「미토콘드리아와 핵 DNA의 유전적 마커에 의한 한국인 집단의 특성」,¹⁴⁾ 1995년에 이석수가 발표한 「한국인에서 미토콘드리아 DNA 전사조절 부위의 염기서열 다양성과 법의학적 활용성」¹⁵⁾ 등이 있다. Y염색체의 분석을 분자인류학에 적용한 초기의 연구로 1987년에 정혁인이 발표한 「한국인 염색체의 다형현상」,¹⁶⁾ 1996년 박화용의 「한국인 집단 내 Y염색체 DNA의 유전적 다형」¹⁷⁾ 등이 있다. 고DNA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

-
- 11) Kim M.H., Choi T.Y., Kim C.W., Han H., Kim G.R., 「“HLA Ethnic Study in Korean Using 3rd AOHWS Antiseraj, Proceedings of the Third Asia-Oceania Histocompatibility Workshop and Conference Held in Sapporo Japan: June 27-July 1, 1986. (Sapporo: Hokkaido University Press, 1986).
- 12) 박명희, 「한국인의 HLA」, 『대한의학협회지』 37, 대한의학협회, 1994, 960-968쪽.
- 13) 김영진 외, 「한국인 집단의 유전학적 연구 10 : 한국인 미토콘드리아 DNA의 유전적 다형」, 『유전학회지』 39, 한국유전학회, 1991, 83-98쪽.
- 14) 홍성수, 「미토콘드리아와 핵 DNA의 유전적 마커에 의한 한국인집단의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15) 이석수, 「한국인에서 미토콘드리아 DNA 전사조절 부위의 염기서열 다양성과 법의학적 활용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 16) 정혁인, 「한국인 염색체의 다형현상 : C-band 법에 의한 1, 9, 16 및 Y염색체에 관하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17) 박화용, 「한국인 집단내 Y염색체 DNA의 유전적 다형」, 충남대학교

되었는데, 1999년 이규식 등이 발표한 「출토 인골의 유전자 분석 : 나주 복암리 3호분 옹관 인골을 중심으로」,¹⁸⁾ 2001년 서민석 등이 발표한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통한 출토인골의 개인 동정 : 사천 늑도 출토 인골과 민통선 민묘 출토 인골을 중심으로」¹⁹⁾ 등이 초기의 연구이다. 이후, 이들 초기 연구들이 개척한 분석대상별 연구는 점차 범위가 확대되고, 그 연구성과 또한 지속적으로 축적되어왔다.

한국인이거나 동아시아인의 기원과 이동을 연구한 박종화,²⁰⁾ 김옥,김종열²¹⁾, 진한준²²⁾, 이흥규²³⁾, 광경돈²⁴⁾, 김순희²⁵⁾, 한국생명공학연구원²⁶⁾ 등은 한국인의 Y염색체나 mtDNA를 분석하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18) 이규식 외, 「출토 인골의 유전자 분석 : 나주 복암리 3호분 옹관 인골을 중심으로」, 『보존과학연구』 20,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5-20쪽.
- 19) 서민석 외,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통한 출토인골의 개인 동정 : 사천 늑도 출토 인골과 민통선 민묘 출토 인골을 중심으로」, 『保存科學研究.』 22, 2001, 27-40쪽.
- 20) 박종화, 「계놈 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뿌리와 다인종사회」, 『미래정책 focus』 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8, 46-48쪽.
- 21) 김옥,김종열, 『미토콘드리아 DNA 변이와 한국인 집단의 기원에 관한 연구』, 고구려연구재단, 2005.
- 22) 진한준, 「동아시아인 집단의 Y-염색체 DNA haplogroups 분포에 관한 민족유전체 정보와 한국인 집단의 형성과정 및 기원」,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23) 이흥규, 『한국인의 기원 : 유전학, 고고학, 언어학, 신화학으로 본 우리의 과거』, 우리역사연구재단, 2010 ; 「유전자 추이로 살펴본 한국인의 기원」, 『한국시베리아연구』 제24권 제2호, 2020.
- 24) 광경돈, 「Y-염색체 STR 하플로타입 분석을 통한 동아시아인 집단의 법과학 및 집단 유전학적 연구」, 단국대학교 생물과학 전공 박사학위논문, 2006.
- 25) 김순희, 「Y염색체 변이에 의한 범유전학 및 한국인 집단기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26) 생명공학연구원은 수년간 국제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의 결과를 2009

고, 다른 아시아인 집단과 비교하여 한국인의 유전적 특징을 파악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인은 아시아대륙 북방과 남방의 특징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며,²⁷⁾ 일본인은 상대적으로 북방, 중국인은 남방의 특징이 강하다. 또, 한국인은 중국에서 갈라져 북중국으로 이동하여 대륙 북부의 영향을 받았고, 후에 일본인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북중국과 한반도가 같은 문화권이며, 한반도 도래인이 일본에 건너갔다는 기존통설을 과학적으로 재확인해준다. 진한준, 곽영돈은 특히, 산동·하북·요녕·길림의 중국인 유전자 변이가 한국인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이들의 연구는 한국인이 일본인, 중국인과 가장 긴밀한 친연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스펜서 웰스(Spencer Wells)가 진행한 ‘제노그래픽 프로젝트’²⁸⁾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년 12월 『사이언스』에 발표하였다. 아시아지역 인간게놈연구회(HUGO, Pan-Asian) 회원들은 2004년부터 남부, 동부아시아의 73인종의 유전체를 분석하여 각 인종 간에 변이가 일어나는 부위(SNP, 단일염기다형성부위)를 비교·추적하였다. 그 결과 각 인종은 사용하는 언어와 지역에 따라 유전적으로 분류되며 이를 추적해보면 유전적 다양성은 동북아인보다 동남아인 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동남아인들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했음을 뜻하며, 동남아인 집단의 이동이 남쪽과 북쪽 양쪽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기존의 가설과 배치된다. 즉 동북아인의 주된 조상이 동남아인이라는 것이다. 아시아인의 조상은 처음에 인도에 도착했고 이중 일부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으로 이동하였으며 그중 일부는 더 남쪽인 동인도네시아, 태평양의 섬까지 간 것으로 보인다. 그 후 몇몇 그룹이 북쪽으로 이주하여 그곳에 먼저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과 합류하여 다양한 인종이 생겨 지금 우리가 분류하는 5인종 즉, 오스트로네시아, 오스트로아시아, 타이카다이, 후모민, 알타이족이 되었다. 일본열도에는 주로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정착하였음도 밝혀졌다. 해당 연구는 한국 측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박종화 등)과 국립보건의연구원(김형래 등), 송실대(김상수), 을지대(김규찬) 연구원들이 참여하였다.

27) 이들의 연구 중 Y염색체를 분석한 진한준과 곽영돈의 연구는 한국인이 동북아시아인과 동남아시아인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며 북방계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다.

28) 부계로 유전되는 Y염색체와 모계로 유전되는 mtDNA의 분석을 통해

김태호 등은 한국 고고유전학²⁹⁾의 현황에 대해 “지난 수십 년 간 고고유전학이 놀라운 발전을 하였음에도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의 연구는 상당히 미진한 상황”이며, 때문에 아직 제대로 “수행된 바 없는 한반도 고유전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였다.³⁰⁾ 2008년 김경용 등은 한국과 몽골에서 약 500~3300년 된 PCR 증폭이 어려운 8구의 고인골에 대해 다양한 PCR 조건들을 시도하여 증폭의 성공률을 비교, 최적의 PCR 조건을 선정하고, 선정된 방법으로 검사한 모든 샘플에서 mtDNA를 성공적으로 증폭시켰다.³¹⁾ 최적의 PCR 조건을 찾아내는 것은 시료의 양이 제한적인 고인골 분석의 핵심적인 전제가 된다. 2009년 김기정 등은 몽골의 고분에서 2000년 된 고인골 세구의 뼈에서 유전자를 추출·분석하였는데, 두 고인골의 모계가 모두 D형으로 현대 동북아에 흔한 유형이며, 그중 남성 고인골은 부계도 C형으로 역시 현대 동북아의 흔한 유형이라는 사실과 다른 하나의 고인골은 부계가 현대 유럽에서 흔한 R형, 모계는 현대 유럽과 동부지중해연안에 흔한 U형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연구 역시 극히 일부만 실행할 수 있던 고인골 DNA의 보통염색체 STR³²⁾의 연구에서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전 지구적인 인류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프로젝트. IBM과 내셔널지오그래픽이 지원하였고 스펜서 웰스가 유전학의 책임자였다.

- 29) 고고유전학은 고DNA, 특히 고인골에서 채취한 DNA를 분석하여 고고학 및 인류학적 증거와 교차검증함으로써 인류사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을 정립하고자 하는 학문으로 자연인류학의 한 분야이다.
- 30) 김태호·우은진·박순영, 「고고유전학의 분석원리와 최근 고유전체 연구 동향」, 『대한체질인류학회지』 제31권 제4호, 2018, 105-119쪽.
- 31) 김경용·우지영·김기정, 「고인골 유전자 증폭 효율이 높은 PCR 반응 조건」, 『대한체질인류학회지』 제21권 제 2호, 2008, 19-103쪽.
- 32) 세포 내 유전자마다 일렬로 짧게 반복되는 DNA 염기서열을 갖고 있는데 이를 STR(Short Tandem Repeat)이라고 한다. 보통 STR 좌위는 상염색체 상에 존재하며 2-4개의 염기가 반복되는 특성을 갖는다.

있는 PCR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³³⁾

스펜서 웰스의 연구는 전 지구적으로 Y염색체와 mtDNA의 변이를 분석하여 인류의 기원과 이동을 추적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그에 따르면 한민족은 대략 1만년 전 인도와 동남아를 거쳐 중국 동부해안을 따라 북상한 집단이 중국에 정착하여 형성되었다. 이들은 장강 이북의 중국에서 주류로 정착한 후, 대략 6000년 전에 중국에서 분리되어 중국의 북부지역³⁴⁾으로 이동하고, 약 3000년 전에 다시 일부가 한반도 및 대륙의 동북지역을 떠나 일본열도로 이동하였다. 이는 한국 연구자들이 진행한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로, 유전학을 이용한 민족계통의 분석이 누가 수행하여도 일정하고, 예측 가능한 결과가 나오는, 과학적 근거를 가진 실증적 연구방법임을 의미한다. 한편 박종화는 현대인이 아닌 고인골 유전자를 분석해야 보다 정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에서 고인골의 유전자 분석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한다. 한국도 이제 발굴된 고인골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들에 대해 유전자 분석을 비롯한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합리적인 시스템의 구축을 고민해야 할 때다. 이를 기반으로 동아시아나 아시아, 혹은 그보다 더 확장된 범위의 국제적 협업이 수행된다면 보다 정확하고 전면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고인골이야말로 고대의 인류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이다.

이 부위는 다형성을 갖기 때문에 개인식별에 이용될 수 있다.

33) 문희체혁 바좌라그좌.김기정.김재현.가와치멧 르학와수령.박애자.이광호.김대진.정윤희.김성수.이원복.김경용, 「몽골 출토 옛사람 뼈와 치아에서 유전자 분석을 이용한 혈연관계조사」, 『대한체질인류학회지』 제 22권 제4호, 2009, 256-258쪽.

34) 주로 산동성과 산서성, 하북성 등을 의미한다.

2. 그밖의 체질인류학-분자인류학을 제외한

과거 고인류의 인골, 유물 등을 분석하여 인류의 기원과 계보를 연구하던 인류학자들의 연구 방향이 생물학, 통계학, 역학 등의 성과를 받아들이면서 인류진화학, 인류계통학, 인류기원론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 인류학자들 역시 이러한 관점을 도입하여 한국인과 주변 인종의 기원 및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고고유전학은 고고학과 유전학의 융합으로 새롭게 개척되고 있는 분야로 분자인류학에 포함된다. 이들은 고인골의 유전자나 치아.골격 등의 체질적 특징을 비교.분석하여 동아시아 각 인종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데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절에서는 앞 절에서 언급한 유전자 분석을 제외하고 주로 고인골이 형태나 기능적 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기원이나 계통을 살펴본 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체질인류학적 관점에서 한국인의 신체에 접근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의 일인학자들이었다. 박순영은 일제강점기 일인학자들 진행한 체질인류학적 연구의 학문적 성격을 분석하여 오늘날 한국 인류학에 물려준 유산과 과제를 검토하고, 한국 체질인류학의 뿌리인 일제의 체질인류학이 학문의 발전에 끼친 해악을 극복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였다.³⁵⁾

광복 직후, 한국에서 체질인류학의 연구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고, 6.25 전쟁이 끝난 후 점진적으로 학계가 정비되면서 연구 활동이 시작될 수 있었다. 초기의 연구는 대부분 의학자들이 진행하였는데, 1956 김동창의 「한인 청년의 체질인류학적 연구」,³⁶⁾ 1961년 김규택의 「서울, 경기도, 경상남도 및 경

35) 박순영, 「일제 식민통치하의 조선 체질인류학이 남긴 학문적 과제와 서구 체질인류학사로부터의 교훈」, 『비교문화연구』 제10집 제1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비교문화연구소, 2004, 191-220쪽.

36) 김동창, 「한인 청년의 체질인류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56.

상북도인이 체질인류학적 연구」,³⁷⁾ 이영일의 「한국인 구진의 체질인류학적 연구」,³⁸⁾ 백상호의 「한국인 비강의 체질인류학적 연구」,³⁹⁾ 1962년 이영호의 「한국인 이개의 체질인류학적 연구」⁴⁰⁾ 등이 초기의 대표적인 연구들이다. 한국인의 신체적 특징을 정리하는 작업을 통해 체질인류학이 초기의 체계를 잡아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인골에 대한 초기의 연구 역시 의학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1976년에 발표된 김종열의 연구⁴¹⁾와 박선주의 연구,⁴²⁾ 1978년에 발표된 김진정·김재봉의 연구⁴³⁾ 등을 들 수 있다. 고인골에 대한 연구는 초기에 형태, 특징 등을 식별하는 물리적 분석기법에 의존하다가 후에 화학적 분석이나 DNA 분석 등의 기술이 도입되면서 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분석이 가능해졌다.

방민규는 치아고고학을 통해 한국인과 알타이계열 종족들, 아시아 각 민족들을 각각 비교·분석하여 한국인의 기원을 추적하였다. 그는 한국인이 삼국 이전에는 남방계열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삼국시대, 특히 신라의 영향력이 커진 후에는 북방의 흔적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는 앞서 소개한

37) 김규택, 「서울, 경기도, 경상남도 및 경상북도인이 체질인류학적 연구」, 『서울의대잡지』 2.2, 서울대학교의과대학, 1961, 73-76쪽.

38) 이영일, 「한국인 구진의 체질인류학적 연구」, 『서울의대잡지』 2.2, 서울대학교의과대학, 1961, 73-76쪽.

39) 백상호, 「한국인 비강의 체질인류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1.

40) 이영호, 「한국인 이개의 체질인류학적 연구」, 『서울의대잡지』 3.1, 서울대학교의과대학, 1962, 41-50쪽.

41) 김종열, 「한국 선사시대인 인골의 개인식별 : 주로 치아를 중심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지』 94, 대한치과의사협회, 1976.11, 909-914쪽.

42) 박선주, 「한국 선사시대 인골연구 : 부산 아치섬 인골에 대하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43) 김진정·김재봉, 「金海佳洞具 에서 發掘된 人骨 에 관한 研究」, 『부산의대잡지』 18.2, 부산대학교의과대학, 1978, 215-218쪽.

분자인류학의 연구성과와 유사한 결과다.⁴⁴⁾ 허동진·김흥업·강현욱 등은 제주지역거주민 머리뼈의 형태학적 특징을 파악하고, 한국 및 인접 국가와 비교하여 체질인류학적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제주지역거주민의 머리 모양은 긴머리형 1.0%, 중간머리형 13.5%, 짧은머리형 42.0%, 아주짧은머리형 43.5%로 나타나 제주지역거주민이 한국인과 밀접한 체질인류학적 특징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⁴⁵⁾ 고인골 연구 분야의 선구자인 박선주 역시 고인골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민족의 기원과 계통을 분석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한반도에 정착한 한민족이 신석기에 큰 유전적 변화를 겪는데, 기후의 변화가 아닌 새로운 유전자의 유입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⁴⁶⁾ 이는 아시아의 남방에서 북방으로 확산한 선남방계가 후에 다시 남방에서 북방으로 확산한 후남방계의 영향을 받았다는 박종화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는 한반도의 고인골이 북방보다는 주로 산동의 용산문화나 하남의 양소문화의 인골들과 유사한 특징을 가졌다고 보았는데, 이는 한국인의 기원이 북중국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박선주의 연구결과 역시 큰 틀에서 분자인류학의 연구성과와 일치한다. 이처럼 고인골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와 형태학적 분석의 결과가 일치하는 것은 분자인류학의 근거인 유전학이 충분히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44) 방민규, 「생물인류학 자료로 본 한국인 기원 문제에 대한 연구」, 『인문사회21』 제9권 제3호, 2018 ; 『치아고고학으로 본 한국인의 기원』, 고양, 맑은샘, 2017 ; 「고인돌 자료로 본 청동기시대 한반도 주민의 삶과 죽음」, 『인문사회21』 제7권 제5호, 2016 ; 「체질인류학으로 본 한국인의 기원-치아인류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한민족연구』 제9호, 한민족학회, 2010, 117-138.

45) 허동진·김흥업·강현욱, 「제주지역거주민 머리뼈의 체질인류학적 특징」, 『대한체질인류학회지』 제21권 제3호, 2008, 267-278쪽.

46) 박선주, 「인골을 통해 본 한·중(동북부) 민족적 특성」, 『한국선사고고학』 제11호, 2005, 31-44쪽 ; 「한민족의 기원과 형성」, 『단군학연구』 제11호, 2004, 67-92쪽.

학문이라는 방증이다. 이러한 전체 체질인류학의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역사학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역사학 연구자가 포함된 연구팀의 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언어학

국내의 언어학계는 한국어를 알타이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언어로 보는 시각과 이러한 알타이어족설을 부정하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⁴⁷⁾ 한편, 일본어에 대해서는 한국어와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관점이 전반적으로 우세한 상황이다.

동북아역사재단 북방사연구소에서 진행한 고조선 언어에 대한 연구⁴⁸⁾는 고어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주목된다. 고조선어가 북연의 언어와 사실상 동일계통의 언어이며, 다른 중원국가의 언어와 거의 친연관계가 없는, 알타이어계에서 기원한 언어일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고조선어가 한국어와 가장 유사하지만, 몽골어, 만주어, 어원커어 역시 일정한 유사성을 보이므로, 고조선은 한국인이 중심이되, 몽골인, 만주인, 어원커인들도 공존하는 사회였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흥미로운 관점이지만, 다른 인접 학문의 성과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알타이기원설은 김방한⁴⁹⁾, 강길운⁵⁰⁾, 최기호⁵¹⁾ 등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어는 이들의 분석

47) 최근의 연구는 알타이기원설보다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고립어로 파악하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48) 동북아역사재단 북방사연구소 편, 『고조선의 언어 계통 연구 : 양웅의 「방언」 수록 고조선어 분석』, 동북아역사재단, 2018.

49) 김방한, 「한국어 계통연구의 문제점」, 『언어학』 제1호, 1983.

50) 강길운, 「한국어와 길약어는 동계이다」, 『한글』 182, 한글학회, 1983.

51) 최기호, 「한국어의 알타이어족설은 수정되어야 한다」, 『문학과 의식』 39, 문학과 의식사, 1998, 322-340쪽 ; 「알타이어족설의 문제점」, 『한글』 227, 한글학회, 1995, 71-106쪽.

처럼 알타이어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알타이기원설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의 모색을 주문한 김주원⁵²⁾, 강경원⁵³⁾ 등의 연구는 새로운 연구의 동력을 모색하기 위한 제안이다. 한편, 이해영⁵⁴⁾, 강길운,⁵⁵⁾ 김병호⁵⁶⁾, 김정남⁵⁷⁾ 등은 한국어가 인도 및 아시아 남부에서 유래되었거나 고시베리아의 고립어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해영은 드라비다어와 한국어의 어휘를 비교하여 그 유사성에 주목하였고, 강길운은 한국어가 고시베리아 종족의 언어인 길랴크어와 동계이며, 한국어가 그 뿌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알타이기원설을 주장하는 이상억은 서울대 의대 법의학고실, 자연대 생명과학부의 연구자들과 비교언어학과 유전학적 방법을 결합하여 한국인과 한국어의 계통을 분석하였는데,⁵⁸⁾ 이상억의 기존 견해와 유전학적 분석이 반대의 결과를 지목하고 있어 알타이기원설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 다시 한번 의문을 품게 한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인으로 부터 일본인이 갈라져 나간 후에 다시 만주족이 갈라져 나갔

-
- 52) 김주원, 「알타이언어의 새로운 연구방향에 대하여」, 『한글』 제 282호, 2008, 343-367쪽.
- 53) 강경원, 「한국어의 계통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방향 설정」, 『문화역사지리』 제18권 제3호 통권 36호, 문화역사지리학회, 2006, 17-28쪽.
- 54) 이해영, 「한국어와 드라비다어의 어휘 비교조사」, 『국어과 교육』 9, 1989, 93-111쪽.
- 55) 강길운, 「한국어와 길약어 는 동계이다 1」, 『한글』 182, 한글학회, 1983, 103-143쪽 ; 「한국어 와 길약어 는 동계이다 2」, 『論文集』 2, 수원대학교, 1984, 75-100쪽.
- 56) 김병호, 「이란, 인도, 태국에서 찾아낸 한국어의 흔적」, 『신동아』 483, 2000, 504-528쪽.
- 57) 김정남, 「박혁거세는 인도인이 키웠다. 신화에 나타나는 우리말과 타밀어의 유사성, 힌두교 문화의 흔적」, 『뉴스메이커』 제 16권 14호, 통권 709호, 2007, 82-85쪽.
- 58) 이상억, 이정빈, 김선영, 천종식, 「비교언어학 및 유전학적 방법에 의한 한국어의 기원 탐구」, 『서울대학교인문논총』 제48집, 2003, 109-145쪽.

다는 분석인데, 이는 진한준의 분석과도 일치한다. 이 연구는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협업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알타이계의 언어는 크게 만주.통구스어, 몽골어, 투르크어로 나뉜다. 만주.통구스어는 시베리아와 만주, 몽골어는 중국의 흑룡강성.청해성.감숙성.내몽고, 몽골, 러시아의 부리야트공화국.칼묵공화국, 투르크어는 터키, 소아시아, 불가강 유역, 러시아 남부,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중국의 신강자치구 등에 분포한다. 알타이지원설은 여러 과학적 근거에 의해 부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문화, 풍속 등의 유사성을 근거로 상당수 연구자들이 지지하고 있다.⁵⁹⁾ 알타이지원설은 근대 시기 서양학자들이 주장하고 일본인 학자들이 받아들인 관점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된 결과일 수 있다. 형태적 유사점에 주목한 서구 연구자들의 관점을 서구=과학이라고 인식하였던 일본지식인들의 강박관념이 받아들인 착오였을 가능성이 있다. 1864년 로니(Rosny D.L.)가 한국어와 알타이어 간의 형태적 유사성을 제기한 이후, 달레(Dallet c.), 윈클러(Winkler H.) 등이 같은 주장을 펼쳤고, 람스테트나 포페 등은 근대시기 이후에도 문법상의 유사성을

59) 알타이지원설을 주장한 연구로 다음과 같은 글들이 있다. 이기문, 「한국어와 알타이 제어의 비교 연구」, 『광복 30주년 기념 종합학술회의 논문집』, 대한민국학술원, 1975 ; 김영일, 「튀르크어와 한국어의 어휘 비교 고찰」, 『한국학논총』 제27권,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0, 62-76쪽 ; 김영일, 「고대지명에 나타나는 알타이어 요소 : <삼국사기 지리지>를 중심으로」, 『지명한』 6권, 한국지명학회, 2001, 83-92쪽 ; 시미즈 기요시, 「부리야트, 다우얼어와 내몽골어를 중심으로 : “북방대륙에서 찾는 우리 겨레의 시원” 답사 리포트」, 『한국시베리아연구』 제 11집 제2호, 통권12호, 배재대학교한국-시베리아센터, 2007, 199-224쪽 ; 황국정, 「《淸學史書》에 나타난 만주어의 격 체계 연구 : 근대 한국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제 45호, 이중언어학회, 2011, 353-374쪽 ; 도수희 외, 『알타이어 속의 한국어, 한국어 속의 알타이어』, 열락, 2014 ; G.J. 람스테트, N. 포페, 핫토리 시로/도재학, 남서영, 임고은 역, 『알타이가설과 한국어』, 서울, 열락, 2016.

근거로 알타이어족설을 주장하였다.⁶⁰⁾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 등의 초창기 일본 연구자들은 이들의 관점을 거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고, 이를 조선에 전파하였다. 광복 후 일제의 지식이 한국사회의 지식체계와 학술 권력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인식이 선형처럼 고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광복 이후에는 국어학자 이기문이 최초로 알타이어족설을 주장하였고,⁶¹⁾ 지금까지도 많은 연구자들이 한국어를 이해하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국어의 기원에 대해서는 그간 알타이어족설, 한일어족설, 극동아시아어족설, 비알타이기층설 등이 주장되어왔다. 비알타이기층설은 한반도고유어의 기층에 알타이어가 결합하였다는 주장과, 알타이어의 기층에 한반도고유어가 덮여서 형성됐다는 주장 등의 두 가지 설이 있다. 이를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한반도고유어로 고시베리아어족 혹은 고아시아어족으로 분류되어 있는 니브히어⁶²⁾를 들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알타이어계인 만주통구스어·몽골어·투르크어와 한국어는 아래의 사항들 때문에 서로 독립적인 기반에서 형성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① 알타이어계의 언어들은 기초 어휘인 신체 지칭어나 친족 명칭어가 거의

60) 핀란드의 언어학자 람스테트(G. J. Ramstedt)와 러시아의 언어학자 포페(Николай Николаевич Поппе)는 근대시기 이후에도 여전히 문법의 유사성을 강조하며 한국어의 알타이어족설을 주장하였다. 알타이어족설을 주장하는 한국의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언어학자들이다.

61) 이기문, 「A Study on the Affinity of Manchu and Korean」,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57. 한국어에 대한 논문의 제목이 영어인 것이 이채롭다. 만주어와 한국어의 유사성을 주장한 이 글로부터 알타이어계와 한국어의 유사성에 대해 일관된 주장을 이어간다.

62) 니브히어(нивхгу) 또는 길랴크어(Gilyak)는 아무르강 유역과 사할린 섬 북부에 분포한 니브히족들이 쓰는 언어로, 다른 어떠한 언어와도 계통이 확인되지 않은 고립된 언어이다.

유사하지 않다.

- ② 수사가 거의 다르다.
- ③ 음운대응의 규칙성이 정확하지 않다.
- ④ 언어 구조는 유사하지만, 차용어를 제외한 공통 요소가 거의 없다.
- ⑤ 문법 요소의 일부 유사성으로 알타이 제어의 친근성을 증명하기에 충분치 않다. 역사적으로 밀접한 접촉을 했고, 강한 영향을 주고받은 결과, 언어 구조가 유사해졌고, 차용어로 인해 공통 요소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어는 알타이어보다는 인도의 드라비다어나 타밀어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와 드라비다어는 모두 교착음이며, SOV형 문장구조를 갖는다. 또한, 기초 어휘인 신체 지칭어나 친족 명칭어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 역시 두 언어가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위의 조건들과 반대되는 즉, 두 언어가 긴밀한 관계임을 의미하는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다. 드라비다인은 그 기원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인더스문명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주로 인도의 남부에 거주하는 종족이다. 한국인 집단의 조상이 10,000년 전에 인도 및 동남아를 경유하여 중국으로 이동하였다는 분자인류학의 연구성과를 받아들인다면 인도어인 드라비다어나 타밀어가 한국어와 긴밀하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김병호는 세계 각국의 기본 어휘와 기본 문법을 비교하여 한국어가 알타이어와는 상당히 이질적이고, 오히려, 인도, 아랍, 유럽어와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한국어는 알타이계보다 인도-아리안계에 훨씬 가까우며, 소아시아나 인도의 드라비다 등의 언어가 인도, 라오스, 미얀마 등을 거쳐 한반도에 정착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유전학이 분석한 한국인의 이동 경로가 언어학으로도 입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김병호의 분석이 옳다면 한민족은 아리안계에서 기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근대시기 일본이 주장하던 ‘아리안기원설’도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닐 수 있다.

III. 일본의 연구 동향-일본인의 기원과 도래인

일본에서도 민족의 기원과 계통에 대한 연구는 여러 논쟁과 함께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인의 기원에 대해서는 열도에서 독자적으로 기원하였다는 단일민족기원론과 민족이동설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 인류학에서는 ‘도래인’에 의한 일본인의 형성’에 커다란 이견이 없는 가운데, 다만 도래인의 원적과 도래인의 규모, 시기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⁶³⁾ 단일민족기원론은 제국주의 시절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였다는 자만심과 아시아에 대한 멸시가 가져온 착시일 가능성이 크지만, 패전 이후, 문헌사학과 고고학을 중심으로 거의 통설처럼 굳어진 상황이다. 일부 사학자들이 단일민족기원론을 비판하고, 한반도 도래설, 기마민족정복설, 삼왕조교체설 등을 주장하지만 학계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있다.

일본에서 최초로 과학적인 가설을 세워 한반도에서 건너온 도래인이 일본인의 기원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서양의 의학자인 벨츠(Erwin Baelz)⁶⁴⁾였다. 그는 일본 아동들의 몽골반점을 보고, 일본인이 말레이몽고인족과 만주한국인족이 도래하여 형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⁶⁵⁾ 제자인 고가네이 요시키요(小金井良精) 역시

63) 근대시기 일본의 인류학자들은 일선동조론, 오족협화, 대동아공영권 등을 뒷받침하며 군국주의적 확장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적어도 단일민족기원론과 같은 완전한 착작은 아니다. 이들의 주장은 어느 정도 과학적이고 통상적인 지식에 근거하고 있다. 한편 메이지시기 및 소화시기에는 상당수의 문헌 사학자들도 일선동조론에 근거하여 일본민족의 한반도 도래설을 주장하였다.

64) 1949년 독일태생으로 의대를 졸업한 의학자다. 1876년부터 26년간 일본에서 활동하였다. 메이지 천황의 주치의의 역할을 하였고, 동경제대에서 800 여명의 의학자를 배출하였다. 일본 여성과 결혼하여 4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1913년 독일에서 심장병으로 사망하였다.

65) Baelz, E. Die koerperlichen Eigenschaften der Japaner. (1885)

벨츠의 주장을 계승하여, 일본인이 한반도에서 도래한 말레이몽고인족과 만주한국인족들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인식하였다.⁶⁶⁾ 사학자인 기타 사타키치(喜田貞吉)는 1921년 발표한 글을 통해 한반도에서 도래한 종족이 천황가를 중심으로 혼합되어 일본민족이 형성되었다고 보고, 고대 한반도인과 일본인을 동족으로 판단하였다.⁶⁷⁾ 민족학자 오카 마사오(岡正雄)는 1933년에 오스트리아의 빈대학교에 제출하고, 1934년 독일에서 간행한 학위논문 「古日本の文化層」에서 기원 전후, 南滿의 유목·농경 혼합문화를 가진 부계 중심의 종족이 한반도를 통해 일본에 건너와 농경문화를 전하고, 모계 중심의 선주민과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였는데, 이 문화를 기반으로 천황족이 출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오카 마사오는 1948년 5월, 동양사학자 에가미 나미오(江上波夫), 민족학자 이시다 에이치로(石田英一郎), 고고학자 야와타 이치로(八幡一郎) 등과 함께 일본민족학회가 주최하는 간담회를 진행하였는데,⁶⁸⁾ 주제는 그의 학위논문 「古日本の文化層」의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에가미 나미오는 ‘천황족은 통구스계열의 기마민족이 일본으로 건너와 정복을 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고, 피지배민인 일본민족은 중국 남방에서 수경을 가지고 건너온 사람들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기마민족정복설’을 주장하였다. 당시는 패전으로 ‘일선동조’, ‘오족협화’와 같이 다른 민족과의 동질성을 주장해야 할 정치적 수요가 없었으므로, 이들의 논의에는 일정 정도 순수한

Mittheil.d.deutschen Gesell. f. Natur- und Völkerkunde Ostasiens. Bd. 4, H. 32

66) 小金井良精, 「人類學上から見たる日本民族」, 『人類學上から見たる日本民族』 43券 4號, 1928.

67) 喜田貞吉, 「日鮮兩民族同源論(1921)」, 『喜田貞吉著作集第8卷 民族史の研究』, 平凡社, 1979, 357-419쪽.

68) 岡正雄, 石田英一郎, 八幡一郎, 江上波夫, 「日本民族文化の源流と日本国家の形成(座談會)」, 『民族学研究』, 13券-3, 日本民族学会, 1949.

학문적 관점이 투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학자인 미즈노 유(水野祐)는 ‘삼왕조교체설’을 주장하였는데, 한반도 남부에서 건너간 기마민족의 후예들이 세운 구나노쿠니(狗如國)의 수장 닌토쿠(仁德)천황이 혼슈를 통일하고 야마토 지역에서 가와치(河内)왕조를 세웠다고 보았다.⁶⁹⁾

근대시기의 대표적인 인류학자인 도리이 류조(鳥居龍藏)는 일본인이 만주·연해주 등에서 한반도를 거쳐 도래한 고유 일본인, 고훈시대 북방에서 이주한 고유 일본인, 동남아에서 들어온 인도네시아인, 장강유역에서 들어온 중국인, 한반도에서 거주하던 韓族, 고구려·백제·임나귀화인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았다.⁷⁰⁾ 역시 인류학자인 우에다 쓰네키치(上田常吉)⁷¹⁾, 고타마 모토쓰구(小濱基次)⁷²⁾ 등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긴키(近畿)에 먼저 정착한 다음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었다고 보았다. 한편, 가나세키 다케오(金關丈夫)는 도래인이 북부 큐슈에서 조몬인과 혼혈하였으나 조몬인에 동화되었으며, 이들이 고훈시대까지 긴키지방으로 이동하여 형질을 변화시켰다고 주장하였다.⁷³⁾ 한편, 마쓰시타 다카유키(松下孝幸)는 도래인을 출신 지역을 기준으로 크게 두 개의 지역, 즉, 양자강에서 한반도에 이르는 지역과 한반도·길림성·흑룡강성·연해주를 아우르는 지역으로 구분하였다.⁷⁴⁾ 하니하라 가즈로(埴原和郎)는 1989년에 펴낸 책에서 야요이시대에 26만명, 고훈시대에 270만명이 이동하는 등 두 차례의 대규모 도래가 이어졌으며, 남방에

69) 水野祐, 『日本古代の国家形成 征服王朝と天皇家』, 講談社現代新書, 1967.

70) 鳥居龍藏, 『古代の日本民族』, 『有史以前乃日本』, 磯部甲陽堂, 1918.

71) 上田常吉, 『朝鮮人と日本人の体質比較』 『日本民族』 111-164, 岩波書店, 1935.

72) 小濱基次, 『形質人類学から見た日本の東と西』, 『国文学: 解釈と鑑賞』 28(5), 至文堂, 1963.

73) 金關丈夫, 『日本民族の起源』, 法政大學出版局, 1976.

74) 松下孝幸, 『日本人と弥生人: その謎の関係を形質人類学が明かす』 (Non book 愛蔵版), 祥伝社, 1994.

서 도래한 원주민과 북방에서 온 도래인이 일본인을 형성하였다는 이른바 ‘2중구조설’을 주장하였다.⁷⁵⁾ 그의 가설은 이후 일본 인류학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다.

아이누와 필리핀 네그리토에 대한 연구로 명성을 얻은 오모토 게이치(尾本惠市)는 하니하라의 2중구조설을 가설로 하여 고인골 mtDNA의 변이와 고전적 유전표지의 유전자 빈도를 이용한 ‘다변량 분석’을 적용하여 일본인과 다른 집단의 계통 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였다.⁷⁶⁾ 아카자와 다케시(赤澤威) 등은 2013년에 협업을 통해 Y염색체와 mtDNA의 변이를 분석하여 일본인의 이동을 추적하였는데⁷⁷⁾ 제노그래픽 프로젝트나 한국 연구자들의 연구와 상당히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사이트 나루야(齋藤成也) 역시 염색체와 mtDNA의 변이를 분석하는 분자인류학적 기술을 적용하여 아이누를 조몬인의 후손으로, 현대의 한국인, 북경과 싱가포르의 漢族을 도래인의 후손으로 분석하고, 현대 일본인의 유전자는 고훈시대의 도래인으로부터 가장 많이 물려받은 것으로 분석하였다.⁷⁸⁾ 시노다 겐이치(篠田謙一)는 mtDNA 및 Y염색체를 분석하여, 일본인의 모계 형질이 한국 및 북중국과 매우 유사하고, 부계의 경우 북중국 및 한반도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대륙에서 벌어진 정복전쟁 등의 영향으로 극히 소수의 부계 유전자가 유전된 영향일 것이라고 보았다.⁷⁹⁾

간자와 히데아키(神澤秀明)는 최근의 연구에서 조몬인 고인골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통해 일본인의 기원을 분석하였는데, 조

75) 埴原和郎, 『日本人の起源』, 朝日選書, 朝日新聞社, 1989.

76) 尾本惠市, 『分子人類學と日本人の起源』, 裳華房, 1996

77) 印東道子 編, 『人類の移動誌』, 京都, 臨川書店, 2013.

78) 齋藤成也, 『日本列島人の歴史』, 東京, 岩波書店, 2015.

79) 시노다 겐이치/박명미 역, 『(DNA가 밝혀주는) 일본인, 한국인의 조상』 서울, 보고서, 2008.

몬인과의 유전적 거리가 아이누, 오키나와인, 본토 일본인, 한반도 및 대륙집단의 순으로 가깝고, 현대 일본인에게 조몬인 유전자가 12%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⁸⁰⁾ 세키네 히데유키(關根英行)는 역사학과 인류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여러 각도에서 일본의 ‘단일민족기원론’의 논리와 그러한 논리가 제기되었던 의도를 비판하고, 한반도 및 대륙에서 도래한 사람들이 일본민족을 형성한 주축이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⁸¹⁾ 일본에서도 인류학, 특히 자연인류학 분야는 분자인류학의 과학적 기법을 받아들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일본인의 기원 등 인류학이 다루는 주제들에 대해 한국, 중국 및 기타 지역의 연구자들과 거의 대동소이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다만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헌사학과 결과를 공유하거나 협업을 통해 공동작업을 진행하는 단계에 진입하지는 못하고 있다. 과학적으로 일관되게 규명되고 있는 도래인의 존재가 자연과학 분야와의 협업, 합리적인 공감을 거쳐 역사학계나 고고학계에 서도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해 본다.

IV. 중국의 연구동향-한족과 소수민족, 동아시아인의 기원

중국에서는 중국 내부의 여러 민족의 기원과 이동에 대한 연구가 일찍부터 진행되었다. 간혹 한반도나 일본과의 관계 및 친연관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발견된다. 동북공정이 시작된 이후 역사학에 대한 통제가 엄중해졌지만, 상대적으로 인류학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환경이 유지되고 있어서 그나마 어

80) 神澤秀明, 「高精度ゲノム解析から見えてきた縄文人の体質・生活・由来」, 『科学』 90(1), 2020, 21-26쪽.

81) 關根英行, 「일본 고고학자의 한반도 도래인 인식 : 일본 인류학자와의 대조를 통해서」, 『동아시아고대학』 41, 동아시아고대학회, 2016.

느 정도 역사적 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민속학자인 何星亮은 오랜 세월 소수민족의 풍속, 신앙 등을 연구하여 문화적, 계통적 갈래를 민속학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위구르 지역이나, 중앙아시아 지역 등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의 토렘신앙 연구는 중국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⁸²⁾ 蔡芸芸은 고대 중국의 오월과 일본의 새신앙을 비교하여 일본의 계통적 기원이 중국의 오월 지방 및 한반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⁸³⁾ 李凱航은 대륙 각지의 언어와 일본어를 비교하는 비교언어학의 방법으로 일본의 다구치 우키치(田口卯吉) 등이 근대 시기에 제기한 일본민족의 ‘아리안 기원설’을 비판하고, 일본어와 동북아 지역의 언어가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⁸⁴⁾

중국에서 mtDNA를 분석한 분자인류학적 연구는 1987년 孫琴美가 홋카이도인의 미토콘드리아 DNA의 다형성을 분석한 것이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⁸⁵⁾ Y-염색체를 분석한 연구 중에 비교적 이른 시기의 영향력 있는 연구로는 金力 등이 동아시아인의 기원을 분석하여 2000년에 발표한 ‘Native or immigrants : Modern human origin in East Asia’를 꼽을 수 있다.⁸⁶⁾ 金力은 上海 復旦大學에서 연구팀을 이끌면서 많은 분자인류학 연구자들을 배출한 중국 분자인류학의 개척자

82) 何星亮, 『中国少数民族图腾崇拜』, 北京, 五洲传播出版社, 2006.

83) 蔡芸芸, 「古代日本与中国吴越地区鸟信仰比较研究--以中日鸟信仰文化传承关系为主线」, 中国民族大学 硕士论文, 2013.

84) 李凱航, 「田口卯吉의 “日本人种雅利安起源说”及其批评」, 『珞珈史苑』 2016年 00期.

85) 孫琴美, 「日本北海道人线粒体DNA的多态性」, 『国外医学.遗传学分册』 1987年 04期.

86) Jin L., Su B., ‘Native or immigrants : Modern human origin in East Asia’, Nature Review genetics, vol.1, no.2(2000), 126-133.

중 한 명이다. 蔡晓云은 동남아시아 몬크메르어족⁸⁷⁾과 몽몐어족⁸⁸⁾의 47개 집단, 1,652개체의 Y염색체의 변이를 분석하여 동아시아의 초기 인류의 진입과 이동을 연구하였는데, 그는 동아시아 남방인군의 유전자가 북방인군보다 다양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남방의 일배체형 종류가 북방의 모든 종류를 포괄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인류가 동아시아에 최초로 진입한 지역이 동남아라는 것을 의미하는 지표라고 보았다. 또한, 동아시아인의 연구에서 Y-SNP⁸⁹⁾의 다형성과 빈도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적절한 일배체군과 그것들의 STR 구조에 주목하여 샘플의 지리적 위도와 STR 돌연변이 거리가 일정하다는 것은, 보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일배체군인 O3a3b-M7 내에 더 젊은 STR 일배체형이 분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蔡晓云의 연구 역시 ‘제노그래픽 프로젝트’나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와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여준다.⁹⁰⁾

중국의 분자인류학 연구에서 주목되는 것은 고인골의 유전자 분석이 동북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하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고인골 DNA의 연구를 선도한 것은 吉林大学의 연구팀이다. 초기의 대표적인 연구로 朱泓 등이 발표한「日本弥生时代居民与中国古代居民的人种学比较」,⁹¹⁾ 「河北阳原县姜家梁遗址

87) 인도차이나 반도의 토착어를 쓰는 어족으로 인도차이나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속한다.

88) 중국남부와 동남아지역에 분포하는 속한 언어 수가 많지 않은 어족.

89) Y-SNP는 Y염색체의 단일 뉴클레오티드 다형현상이다. Y-SNP는 주로 부계의 DNA 계보를 밝히는데 사용된다. 하플로그룹(Haplogroup)은 분자 진화 연구에서 SNP 변이로 공통의 선조를 공유하는 유사한 하플로타입의 집단이다. 하플로그룹은 유사한 하플로타입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플로타입으로부터 하플로그룹의 예측이 가능하며, SNP 테스트로 하플로그룹을 확인할 수 있다.

90) 蔡晓云, 「Y染色体揭示的早期人类进入东亚和东亚人群特征形成过程」, 2009, 复旦大学校 博士学位论文.

91) 潘其风, 朱泓, 「日本弥生时代居民与中国古代居民的人种学比较」, 『华夏考古』

新石器时代人骨DNA的研究」,⁹²⁾ 「古人骨DNA的提取、扩增、测序与研究」⁹³⁾ 등을 들 수 있는데 고인골의 DNA를 직접 분석하거나 고인골 연구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2014년 朱泓은 고대 중국 각 지역 거주민들의 고인골을 분석하였는데, 최신의 유전자 기술을 적용하여 고대시기 중국 거주민들의 계통 및 친연관계를 과학적으로 규명하였다.⁹⁴⁾ 朱泓은 吉林大學의 邊疆考古研究所를 이끌면서 중국 고인골 DNA 연구 분야를 개척한 인물의 하나다. 2006년에 金力 등은 청동기에서 진.한시기에 이르기까지 중국 고대 거주민들의 고인골을 체질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청동기에서 진.한시기에 걸친 황하유역의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몽고인종의 동아시아 유형의 체질 특성을 가지며, 황하의 중하류 지역 및 양자강 하류 지역의 일부 집단은 해외로 이동하였다고 분석하였다.⁹⁵⁾

張帆은 고인골 581구에서 mtDNA를 추출하여 계통을 분석하였다. 그는 한대 이전의 중국 서북지역과 산둥지구의 고대 군체 간에 일정한 모계유전의 차이가 있는데, 동북지구⁹⁶⁾의 서로 다른 시기의 인골들을 대상으로 DNA를 분석하여 이런 차이가 중국 남방에서 산둥지역으로의 이주민 유입이나 남방지역과의 교류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한대에는 북방문화

1999年 04期.

92) 万诚, 周慧, 崔银秋, 段然慧, 李惟, 朱泓, 「河北阳原县姜家梁遗址新石器时代人骨DNA的研究」, 『考古』, 2001年 07期, 74-81.

93) 周慧, 万成, 朱泓, 「古人骨DNA的提取、扩增、测序与研究」, 『北方文物』, 2001年 03期, 8-11.

94) 朱泓, 『中国古代居民体质人类学研究』, 北京, 科学出版社, 2014.

95) 潭嬭泽, 徐智, 金建中, 韩康信, 金力, 「中国青铜至秦汉时期古代居民体质研究」, 『第10届中国脊椎动物学学术年会论文集』, 北京, 海洋出版社, 2006. 주로 한반도, 일본으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96) 여기서는 산둥지역을 지칭한다. 과거 중국의 동북지구는 지금의 산둥이나 하북을 의미한다.

집단이 점차 동으로 확장하여 산둥지구의 유전자에 영향을 주는데, 북방문화를 가진 집단은 일본에도 영향을 주어 조몬시대에도 그 흔적이 나타나며, 야요이시기에는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았다.⁹⁷⁾ 다만, 張帆이 일본인에 영향을 준 북방문화와 관련하여 한반도를 매우 소략하게 다루었다는 점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일본인에게 영향을 준 북방의 문화는 주로 한반도를 통해 전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그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합리적 해석이다. 張帆은 5000년 이전에 양자강 이남에 거주하던 집단이 5000년 전 무렵에 산동으로, 다시 만주와 한반도, 일본으로 이동하였다고 분석한다. 흥미로운 것은 동남아에서 사천→섬서→산서를 경유한 집단 역시 한반도로 이동하였다는 점이다. 역시 큰 틀에서 제노그래픽 프로젝트 및 한.일의 분자인류학적 해석과 일치한다.

한편, 孙娜.王传超의 최근 연구는 언어학과 분자인류학적 방법을 통합하여 대륙 각지의 언어와 유전자를 일본과 비교하여, 일본인이 야요이시대를 지나면서 한반도, 해양 등을 거쳐 대륙의 동북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정착하여 형성되었다고 분석하였다.⁹⁸⁾ 周蜜은 유전자를 분석하여 일본인은 조몬시대와 야요이시대에 걸쳐 모두 대륙의 동북지역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아이누 역시 고동북유형⁹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분석하였다.¹⁰⁰⁾ 동북아, 동아시아, 동남아, 대양주를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일본인의 기원과 다른 지역과의 친연관계를 분석한 王令红의 연구¹⁰¹⁾도 비교적 이른 시기 유전학 및

97) 张帆, 「中国古代人群的mtDNA多态性研究」, 复旦大学博士论文, 2005.

98) 孙娜.王传超, 「言语学和分子人类学视野下日语的起源与日本人群的混合历史」, 『复旦学报(社会科学版)』, 2020年 01期.

99) 고시베리아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100) 周蜜, 「日本人种论」, 吉林大学博士论文, 2007.

101) 王令红, 「中国人和日本人在人种上的关系——颅骨测量性状的统计分析研究」, 『

고고학적 성과를 이용하여 대륙과 일본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일본인, 일본어에 대한 연구에서 주목할 것은 한반도를 마치 경유지 정도로 보고 일본과 대륙의 직접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한편 중국 각 지역에 분포하는 소수민족의 고인골 유전자를 분석하여 소수민족의 종족적 계통과 갈래를 분석한 李樹春의 연구¹⁰²⁾, 역시 같은 방법으로 광서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의 기원을 탐구한 徐杰舜·李辉의 연구¹⁰³⁾, 소수민족의 Y염색체를 분석하여 각지로 산개한 같은 민족 간의 언어적 관계를 분석한 文少卿·谢小冬·徐丹의 연구 등은 중국 소수민족에 대한 비교적 비중 있는 연구들이다.¹⁰⁴⁾ 이밖에도 중국에서는 각 지역과 소수민족에 대한 유전자 분석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연구를 일일이 열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평인 康瀚予의 글¹⁰⁵⁾은 현대 중국의 인류학이 변화의 분기점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민족 기원에 대한 연구는 그 종합성과 복잡성 때문에 자료와 방법에 대한 요구 수준이 매우 높고, 문헌 외에 고고자료, 인류학, 언어학 등이 모두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특히 자연과학의 개입으로 연구공간이 크게 확장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岭南民族源流史』¹⁰⁶⁾는 전통인류학과 분자인류학이 체계적으로 결합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었고,

人类学学报』 1987年 01期.

102) 李树春, 『中国少数民族遗传学概论』(中国少数民族传统医学课程丛书), 北京, 中央民族大学出版社, 2010.

103) 徐杰舜·李辉, 「分子人类学的视野:广西世居民族源流新论」, 『广西师范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7年 04期, 29-36쪽.

104) 文少卿·谢小冬·徐丹, 「接触与混合-从Y染色体的角度看东乡人群及其语言的关系」, 『遗传』 2013年06期, 761-770.

105) 康瀚予, 「研究族群源流史的方法-《岭南民族源流史》与《越文化发展论》的启示」, 『广西民族研究』, 2016年 01期, 70-79쪽.

106) 徐杰舜·李辉, 『岭南民族源流史』, 云南人民出版社, 2014.

『越文化发展论』¹⁰⁷⁾은 분자인류학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월족의 기원에 접근하는 종합적인 시각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하였다. 康瀚予의 시각은 이글의 인식과 동일하다. 중국 역시 오늘날 자연과학이 만들어준 공간을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어떻게 채우고 확장할지,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어떻게 교직하여 융합이라는 시대적 화두에 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중국에서 이루어진 유전자 분석을 통한 민족의 기원 및 이동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제노그래픽 프로젝트나 한국, 일본의 연구자들이 도출한 결론과 일치한다. 동남아시아에서 2번에 걸쳐 북방으로 이주하면서 동북아 전역에 정착하였고, 이들이 지금의 중국이나, 한반도, 일본 등에서 주된 유전적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이 중국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다만 기존의 중국 고대문헌에 짜 맞춘 듯한 연구의 틀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로 발전하고 있는 유전자 분석기법을 활용한 연구는 중국에서도 이미 새로운 역사적 논의를 촉발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유전학의 과학적 성과와 인류학의 발전은 문헌사학 및 고고학의 미제를 해결하거나 논의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열쇠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중국의 연구 동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V. 혁신, 그리고 과학적인 동아시아 고대사 인식을 위하여

자연과학의 성과에 힘입어 분자인류학은 그간 인문학이 주도 하였던 역사 해석의 패러다임에 강력한 충격을 가하고 있다. 승자의 주관적인 해석 내지 판단의 결과물인 문헌사료의 해석

107) 叶岗, 陈民镇, 王海雷 等, 『越文化发展论』, 中华书局, 2015.

에만 의존하였던 역사서술이 누구라도 수궁할 수 있는 과학의 영역 안에 포섭되어간다는 사실은 그간 문헌사학이 누려온 역사해석의 헤게모니가 항상 당연하게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문학의 주장, 특히 쟁점이 되는 주장에는 반드시 상대방이 존재한다. 같은 자료를 보고도 주관적 신념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을 주장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그 결론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한·일의 역사논쟁이나 중국의 동북공정,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토분쟁, 인종갈등, 역사논쟁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일방적 주장이 아닌, 과학적 ‘실증’과 동행하는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는 인문학이 인간들의 공존과 공감을 모색하는 학문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분명한 사실은 자연과학은 정밀한 기술로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난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지만, 거시적으로 역사 전체를 조망하는 시야를 확보하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반대로 주로 문헌에 의존해왔던 역사학은 통사적 안목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자연과학만큼 실증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단을 가지지 못한 채 공허한 담론과 진영논리에 갇혀있다는 점이다. 항상 새로운 것은 익숙한 것이 될 때까지 일정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혁신은 그 객관적 가치가 인정되면, 반드시 언젠가 사회에 받아들여지고, 결국에는 승자가 되어 사회를 변혁하는 핵심적인 동력이 된다. 분자인류학의 혁신적 역사해석 역시 일정한 사회적 저항과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만, 조만간 역사를 해석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정착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아마도 현재의 역사학 시스템으로 절대 해석할 수 없는 난제들에 대해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지금까지 인류가 가져본 적이 없는 유일무이한 대안일 것이라 믿고 있다. 특히 그 해석을 두고 논쟁과 상대방에 대한 혐오가 그치지 않는 동아시아의 고대 역사에 대한 명확한 해석의 기

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도래인 인식(일본인의 정체성 인식), 한국의 식민사관 등은 현재 동북아 3국이 당면한 고대사 인식의 높은 장벽이자 서로를 향하는 날카로운 비수로 기능하고 있다. 오랜 기간 역사 서술을 史實이 아닌 허구와 창작, 정치적 책략으로 점철한 결과이다. 이러한 난제들, 혹은 의도적인 왜곡들은 마땅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연구를 통해 극복되어야만 한다. 분자인류학은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고 역사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영역으로 견인해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역사를 건축물로 본다면, 분자인류학은 기초에 해당하는 골조이고, 고고학은 벽재이며, 언어학은 배관, 역사학은 마감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분자인류학을 뼈대로 다른 학문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역사라는 건축물을 세운다면, 그 건축물은 반드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구조를 가진 건물이 될 수밖에 없다. 분자인류학, 혹은 체질인류학이 과학의 영역에 존재하는 한 그것을 뼈대로 구축한 역사 역시 과학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간 분자인류학은 역사를 과학의 영역 속에 부활시키는 새로운 차원의 학문 체계를 개척하였고, 고고학과 언어학도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학술 관행을 비판하거나 분자인류학과 결합하면서 혁신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혁신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역사학계가 대답할 차례다. 역사학계가 인류학의 혁신적인 성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 두 학문은 다각적인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상대방의 장점을 인식하면서도 진영논리나 기득권 때문에 외면한다면 적지 않은 비용과 혼란이 고스란히 사회에 전가될 것이다. 두 학문 분야가 모두 승자가 되는 길은 전폭적으로, 신속하게 서로의 성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다층적인 협업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연구를 기획하여 실행하고,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두 학문 분야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서로의 결함을 보충하며 스스로의 역량을 발휘한다면, 이전에 볼 수 없던 과학적이고, 통사적인 역사서술이 가능할 것이다.

서구와 중국의 경우 현대 인류학은 이미 융합학문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분자인류학은 의대나 생물학과 실험실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고고인류학은 역사학에 종속되어 있으며, 언어인류학은 국어학이나 외국어 연구의 하위개념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풍토에서 여러 인류학 분야의 융합적인 협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최근 각국에서 유전학과 고고학, 유전학과 언어학의 협업이 시도되고 있는 것은 각 인류학 분야가 융합적으로 협업을 진행하였을 때 훨씬 정확하고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자인류학의 분석 결과가 언어학이나 고고학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는 사실은 협업이 개별적인 노력의 낭비를 막는 효율적인 연구의 기획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학적 연구의 결과들이 통사적으로 전체 동아시아 역사를 관통하려면 이들 연구결과를 과거의 문헌들과 비교·검증하여, 잘못 기재된 문헌의 내용을 비판하고, 수정을 가할 수 있는 문헌사학의 역량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분자인류학, 고고학, 언어학 등의 인류학 분야에 역사학까지 결합하는 거대한 융합의 틀이 만들어져야만 과학적이면서 전면적인 역사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 논문은 2020년 00월 00일에 접수되어,
2020년 00월 00일에 심사를 의뢰하여 00월 00일에 심사 완료되었으며,
2020년 00월 00일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

【참고문헌】

1. 단행본

- 방민규, 『치아 고고학으로 본 한국인의 기원 = Dental analysis in archaeology』, 고양, 맑은샘, 2017.
-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류재화 역, 『오늘날의 토테미즘』,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2.
- 시노다 겐이치/박명미 역, 『(DNA가 밝혀주는) 일본인, 한국인의 조상』 서울, 보고사, 2008.
- 스펜서 웰스/채은진 역, 『인류의 조상을 찾아서 : 제노그래픽 프로젝트』, 서울, 말글빛냄, 2007.
- 김욱·김중열, 『미토콘드리아 DNA변이와 한국인 집단의 기원에 관한 연구』, 서울, 고구려연구재단, 2005.
- 斎藤成也, 『日本列島人の歴史』, 東京, 岩波書店, 2015.
- 印東道子 編, 『人類の移動誌』, 京都, 臨川書店, 2013.
- 尾本恵市, 『分子人類学と日本人の起源』, 裳華房, 1996.
- 埴原和郎, 『日本人の起源』, 朝日選書, 朝日新聞社, 1989.
- 喜田貞吉, 『日鮮両民族同源論(1921)』, 『喜田貞吉著作集第8巻 民族史の研究』, 平凡社, 1979,
- 水野祐, 『日本古代の国家形成 征服王朝と天皇家』, 講談社現代新書, 1967.
- 叶崗, 陳民鎮, 王海雷 等, 『越文化發展論』, 中華書局, 2015.
- 朱泓, 『中国古代居民体質人類学研究』, 北京, 科学出版社, 2014.
- 李樹春, 『中国少数民族遺伝学概論』(中国少数民族傳統医学課程叢書), 北京, 中央民族大学出版社, 2010.
- 徐杰舜·李輝, 『岭南民族源流史』, 云南人民出版社, 2014.
- 何星亮, 『中国少数民族图腾崇拜』, 北京, 五洲伝播出版社, 2006.

2. 연구논문

- 박중화, 「게놈 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뿌리와 다인종사회」, 『미래정책focus』 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8.
- 김태호·우은진·박순영, 「고고유전학의 분석원리와 최근 고유전체 연구 동향」, 『대한체질인류학회지』 제31권 제4호, 2018.
- 김순희, 「Y염색체 변이에 의한 범유전학 및 한국인 집단기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허동진·김홍엽·강현욱, 「제주지역거주민 머리뼈의 체질인류학적 특징」, 『대한체질인류학회지』 제21권 제3호, 2008.
- 박선주, 「인골을 통해 본 한·중(동북부) 민족적 특성」, 『한국선사고고학』 제11호, 2005.
- 박순영, 「일제 식민통치하의 조선 체질인류학이 남긴 학문적 과제와 서구 체질인류학사로부터의 교훈」, 『비교문화연구』 제10집 제1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비교문화연구소, 2004.
- 진한준, 「동아시아인 집단의 Y-염색체 DNA haplogroups 분포에 관한 민족유전체 정보와 한국인 집단의 형성과정 및 기원」,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김병호, 「이란, 인도, 태국에서 찾아낸 한국어의 흔적」, 『신동아』 483, 2000.
- 이상억, 이정빈, 김선영, 천종식, 「비교언어학 및 유전학적 방법에 의한 한국어의 기원 탐구」, 『서울대학교인문논총』 제48집, 2003.
- 이규식 외, 「출토 인골의 유전자 분석 : 나주 복암리 3호분 옹관 인골을 중심으로」, 『보존과학연구』 20,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 홍성수, 「미토콘드리아와 핵 DNA의 유전적 마커에 의한 한국인집단의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김영진 외, 「한국인 집단의 유전학적 연구 10 : 한국인 미토콘드리아 DNA의 유전적 다형」, 『유전학회지』 39, 한국유전학회, 1991.
- 이혜영, 「한국어와 드라비다어의 어휘 비교조사」, 『국어과 교육』 9, 1989.
- 박명희·김상인, 「정상 한국인의 HLA 항원 분포에 관한 연구」, 『서울대의대학술지』 25, 서울대의과대학, 1984.

- 김방한, 「한국어 계통연구의 문제점」, 『언어학』 제1호, 1983.
- 강길운, 「한국어와 길약어는 동계이다」, 『한글』 182, 한글학회, 1983.
- 김진정·김재봉, 「金海佳洞具 에서 發掘된 人骨 에 관한 研究」, 『부산의대잡지』 18.2. 부산대학교의과대학, 1978.
- 神沢秀明, 「高精度ゲノム解析から見えてきた縄文人の体質・生活・由来」, 『科学』 90(1), 2020.
- 喜田貞吉, 「日鮮兩民族同源論(1921)」, 『喜田貞吉著作集第8卷 民族史の研究』, 平凡社, 1979.
- 水野祐, 『日本古代の国家形成 征服王朝と天皇家』, 講談社現代新書, 1967.
- 小浜基次, 「形質人類学から見た日本の東と西」, 『国文学：解釈と鑑賞』 28(5), 至文堂, 1963.
- 上田常吉, 「朝鮮人と日本人の体質比較」, 『日本民族』, 岩波書店, 1935.
- 鳥居竜藏, 「古代の日本民族」, 『有史以前乃日本』, 磯部甲陽堂, 1918.
- 孫娜·王伝超, 「言語学和分子人類学視野下日語の起源与日本人群的混合歷史」, 『复旦學報(社会科学版)』, 2020年 01期.
- 徐杰舜·李輝, 「分子人類学的視野:广西世居民族源流新論」, 『广西師範學院學報(哲學社会科学版)』, 2017年 04期.
- 李凱航, 「田口卯吉的“日本人种雅利安起源說”及其批評」, 『珞珈史苑』 2016年 00期.
- 蔡芸芸, 「古代日本与中国吳越地区鳥信仰比較研究--以中日鳥信仰文化傳承關係為主線」, 中国民族大学 硕士学位论文, 2013.
- 文少卿, 謝小冬, 徐丹, 「接触与混合--從Y染色体的角度看東鄉人群及其語言的關係」, 『遺傳』 2013年06期.
- 蔡曉云, 「Y染色体揭示的早期人類進入東亞和東亞人群特徵形成過程」, 2009, 復旦大學 博士学位論文.
- 潭嬭泽, 徐智, 金建中, 韩康信, 金力, 「中国青铜至秦汉时期古代居民体质研究」, 『第10届中国脊椎动物学学术年会论文集』, 北京, 海洋出版社, 2006.
- 張帆, 「中国古代人群的mtDNA多態性研究」, 復旦大學博士論文, 2005.
- 万誠, 周慧, 崔銀秋, 段然慧, 李惟, 朱泓, 「河北陽原具姜家梁遺址新石器時代人骨DNA的研究」, 『考古』. 2001年 07期.

Jin L., Su B., 'Native or immigrants : Modern human origin in East Asia', Nature Review genetics, vol.1, no.2(2000).

潘其風, 朱泓, 「日本弥生時代居民与中国古代居民的人种学比較」, 『華夏考古』1999年 04期.

孫琴美, 「日本北海道人線粒体DNA的多態性」, 『国外医学.遺伝学分冊』1987年 04期.

王令紅, 「中国人和日本人在人种上的關係——顱骨測量性状的統計分析研究」, 『人類学学報』, 1987年 01期.

〈Abstract〉

A Study on the Origin of the Northeast Asian People and the Ancient Northeast Asian

Jang Wu-soon·Moon Chi-ung

The study of the origins of Northeast Asians is surprisingly developing with the integration of genetic knowledge and technology into the field of anthropology. The ancient history of Northeast Asia is essentially linked to the origins and migration of Chinese, Korean and Japanese people.

Molecular anthropology reveals new information on East Asian and Northeast Asian groups, providing opportunities for new historical interpretation of Northeast Asian ancient times. On the origin and migration of East Asian groups, which are at least based on molecular anthropological analysis, the academic community of Korea, China, and Japan has a similar conclusion. Howe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Chinese and Japanese historians is far from the results of molecular anthropology.

How historians accept the achievements of molecular anthropology and how to proceed with collaboration will be a key task in the future of molecular anthropology and historical studies.

Key Words : Anthropology, Molecular anthropology, Y chromosome, Mitochondrial DNA, Ancient DNA, The Origins of Northeast Asians.